

깨달음을 원하는 존재가 사라질 때

| 마두카르 톰슨 | 손민규 옮김 |

깨달음이란 '자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깨닫고자 하는 '그' 자신의 노력과 애씀, 존재감 등이 모두 어떤 과정에 의해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하구임을 '보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라메쉬 : 무엇을 바라는가? 그대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인가?

톰슨 : 저는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희생도 치르겠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만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라메쉬 : 누가 무엇을 찾는가? 그대가 그대 질문 속의 ‘누구’와 ‘무엇’을 이해한다면, 그때 그 여행은 끝날 것이다.

톰슨 : 저는 지금 즉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여행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메쉬 : 음, 마두카르. 마두카르는 인도식 이름인데 어떻게 이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누가 그대에게 이 이름을 주었는가?

톰슨 : 파파지에게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청하자 그가 이름을 주었습니다.

라메쉬 : 그렇군. 이제 그대가 스스로를 마두카르라고 하는 것은 마두카르라고 불리는 몸과 마음의 유기체, 즉 개인적인 행위자와 자유의 지라는 감각에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뜻이다. 기독교적인 이름과 산스크리트의 이름에는 차이가 없다.

톰슨 :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몸이나 마음에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이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저는 깨달았다는 이

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라메쉬 : 우선 그대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해 보라. 몇 해 동안의 수행으로 그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톰슨 : 오쇼는 자아가 없는 상태로 다가가는 세 가지 접근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춤을 출 때도 전존재로 춤을 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위자로서의 자아가 사라지고 순수한 춤만 남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식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접근방식에서 모든 행위는 자신의 관심이나 행위의 연속성에 대한 생각 없이 실행됩니다. 행위는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개별성을 넘어선 행위가 됩니다. 개인적인 행위자라는 의식 없이 행위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으면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오쇼의 세 번째 원칙은 모든 행위를 축제를 벌이듯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우리나라 행위 역시 개인을 넘어서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좌선과 위빠사나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명상은 점점 더 선택 없는 깨어 있음으로 데려가 줍니다. 이 세 가지 접근은 육체와 마음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라메쉬 : 오쇼와 함께 했던 수행은 성공적이었는가?

톰슨 : 제 모든 행위가 완전히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깨어있음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합니다. 전적으로 행동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아름다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접근방법인 ‘전적으로 깨어서 행동하기’는 제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인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앉아 있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으며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상태에 다다르지는 못합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과 반대로 오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도구처럼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이야기를 경험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그의 제자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은 특이한 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토리와 마음이 사라지는 황홀한 경험, 그리고 축복감에도 불구하고 오쇼와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다는 데 일말의 의혹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메쉬 : 파파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그와 함께 한 경험은 어떤 것인가?

톰슨 : 파파지와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도 없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의 존재가 각자의 본질에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순간에 길을 찾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와의 세 번째 사트상에서 자아가 사라진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파파지는 제가 깨달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라메쉬 : 깨달았다고.

톰슨 : 글쎄요. 파파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사라진 경험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이었고, 황홀경의 거대한 파도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자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그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의 깨달음에 대해 의심한다면 그것은 정말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라메쉬 : 그대가 여전히 묻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톰슨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마음이 사라지고 황홀경에 이르는 경험은 깨달으려는 저의 욕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메쉬 : 구도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가르침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의식이다. 의식만이 존재하므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봇다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이 일어난다.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톰슨 : 좀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메쉬 :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식이라면 어떻게 개별적인 행위자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행위와 결정은 존재한다. 그

깨달음은 깨달으려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깨달음은 깨달음을 원하는 존재, 즉 자아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이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구도 깨달음을 누리지 못한다.

러나 그런 행위와 결정은 의식 또는 전체성의 한 부분으로서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아닌 개인적인 행위자로서의 의식 때문에 자아는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믿는다. 사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유기체 속에서 비개별적으로 가능하는 것은 의식뿐이다.

톰슨 : 그렇다면 영적인 탐구도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메쉬 : 물론이다.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자아의 소멸이며, 길을 찾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일은 근원에서 비롯된 일이다. 전존재와 신, 그리고 의식에서 비롯된 일이다.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 일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내가 ‘신’이라고 말할 때, 그 신은 형체를 가진 실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신’은 근원이다.

이러한 것이 개념이다. 모든 성자와 경전이 말하는 것은 모두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념에 반대하거나 찬성한다. 개념의 유용성과 가치는 그것이 진리를 가리킬 때로 한정되어 있다. 세상에 현현한 모든 것과 그 기능이 존재의 근원을 반영한다는 개념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 진리가 바로 근원이다.

톰슨 : 그렇다면 찾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깨닫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메쉬 : 수행을 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

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톰슨 :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메쉬 : 깨달음은 깨달으려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신의 뜻이며 몸과 마음이라는 유기체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깨달음을 원하는 존재, 즉 자아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이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구도 깨달음을 누리지 못한다.

톰슨 : 그러나 깨달음은 현상적이며, 눈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메쉬 :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은 찾는 과정의 마지막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깨달음은 타고난 것이며, 행위자와 구도자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것도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했을 때 일어난다. 이 일을 통해 ‘나’라는 자아는 완전히 사라진다.(끝) 

- 이 글은『톰슨씨의 명상기행』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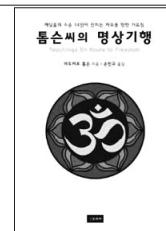
저자 | 마두카르 톰슨Madhukar Thompson | 독일 출생으로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한 마두카르 톰슨은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며 일본에서 보석 수입업체를 설립한다.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금전적인 자유에 만족하지 못한 톰슨은 30세가 되기 직전에 영혼의 구도를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난다. 1980년에 그가 영혼의 구세주로 믿어왔던 오쇼를 만나 이후 12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수행에 전념한다. 그러나 1990년 오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톰슨은 자신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음을 깨닫고 구도의 길을 떠난다. 톰슨은 라마나 마하리쉬의 제자이자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진 파파지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된다. 파파지는 몇 차례 톰슨이 깨달았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자신의 탐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낀 톰슨은 1993년 완전한 마지막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스승을 찾아 인도 전역을 떠돌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라메쉬 발세카르를 만나 1996년까지 함께 지낸 것을 비롯하여 십여 명의 스승들을 만나 그들과의 대화를 기록했다.

역자 | 손민규 | 오쇼의 제자로 입문한 후 20여 년 동안 인도를 오가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 교류했다. 영혼의 테러리스트로 알려진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나 큰 감화를 받았고, 오쇼의 법맥을 이은 끼란지와 12년 동안 친교를 나누며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명상서적 전문 번역가로 일하면서 50여 종의 책을 한국에 번역 소개했다. 현재 오쇼와 끼란지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는 오쇼코리아를 이끌고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톰슨씨의 명상기행

깨달음의 스승 14인이 전하는 자유를 향한 가르침



저자 마두카르 톰슨 | 역자 손민규 | 출판사 젠토피아 | 정가 17,000원

자유를 찾으려는 마두카르 톰슨의 개인적 모험에서 일어났던 일화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각 장은 날짜 순서대로 저자가 만났던 다양한 스승들과의 속 깊은 대화를 담고 있다. 독자들은 각각의 기록들이 각 스승들의 가르침 모두를 집약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그것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개인이 던진 질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특정한 가르침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각 스승의 유형에 따른 개성적인 향취를 느끼게 해주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각 장의 앞머리에는 만남이 있게 된 앞뒤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으며, 각 장의 끝에는 대화를 나눈 스승의 약력을 소개했다. 사생활 침해를 피하기 위해 대화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도 있다.